

# 또다시 앞으로

김호철 글, 곡



가 버린 세-월을 탓하지 마라 지나간 청춘 일랑 욕하지 마라  
 닳혀 깨어지는 파도와 같이 산산히 부서져서 다시 모여라



아 직 도 태 양 은 우리 의 머리 위 에 빛 나 고 있 다 부



어 차 피 우 리 는 한 배 의 운 명 이 니 까 자



저 쓰 라 린 세 월 도 기 름 밥 눈 치 밥 의 나 날 도



자 또 다 시 일 어 나 역 사 의 발 맞 추 어 하 나! 둘! 셋! 앞 으



로 또 다 시 앞 으 로 눈 덩 이 첫 덩 이 로 앞 으 로 굴 러



끝 내 는 우 리 가 건 설 할 세 상 을 향 해 앞 으 로